

산업보건 서비스의 상업주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염 용 태

지난 연말 모교수가 대통령께 드린 '양심선언'은 의료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동료의사들과 제자들의 '도둑질'을 대통령께 직언한 것이다. 여기서 그 반응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의 사람들은 그 교수의 폭로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지난날의 관행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거의 사라진 지난날의 관행이라 함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하는 논법이다. 하여간 의료계나 약업계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본인이 후에 도둑질 표현 등 과격한 표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도둑질'이 아니라고 항변하자니 창피한 일이다. 추락된 의료계의 신뢰를 되살릴 길이 없어 생각만 해도 불쾌해 진다. 이 불쾌한 일을 새삼 재론하는 이유는 산업보건 서비스에 종사해 온 우리들에게는 전혀 남의 일인가 하는 불안감에서 他山之石으로 삼아 보려는 의도 때문이다.

어느 대학교수가 엄청난 혈기의 표출로 산업보건 서비스의 주체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지난날의 부조리를 과감하게 대통령께 직언하고, 국세청과 검찰에게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까 하고 상상하니 세상살기가 싫어지는 느낌이다. 우리는 산업보건 분야에 마진이 많은 약을 골라 처방을 낼 기회도 없었으며 약값의 할증이나 할인가매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망상이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둑질'의 표현은 심하다 할지라도 도둑질은 약값의 할증이나 할인가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산업보건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어느 교수가 학자적 양심의 발로라 하면서 의협심을 발휘하지나 않을까 하여 기우에 속하겠지만 반성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지난해 어느 세미나 토론에서 토론자였던 어느 대학의 교수가 산업보건사업에 기여해 온 선배들을 지나친 commercialism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공박한 일이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교수도 '도둑'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장사꾼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회유하여 commercialism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기가 장사꾼은 다 도둑놈이라는 우리의 속말이 있으니 그것이 그것인지 모르겠다.

우리의 선배님들은 시혜(施惠)라는 표현으로 의료를 국민에게 베푸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

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의 개념이 보편화하면서 의료도 경제용어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대립적 용어에서 유지되게 되었다. 보다 현실적인 표현이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의료의 거의 상업화되고 있는 사실을 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식민지 시대에 공공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의료의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이를 시혜라고 했을 것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나 일부사회에서는 시혜에 속하는 의료제공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 주도의 의료 제공이기에 commercialism을 배제할 수만도 없다. 더구나 산업보건 서비스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30여년전 국가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은 낡아빠진 X-ray 촬영기를 들고 직장별로 찾아다니면서 직업병 환자를 색출하였다. 정부는 물론 대학이나 병원의 보조도 없었다. 사업주를 설득하여 검진비를 받았다. 이것이 효시가 되어 후에 노동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몇몇 되지 않는 검진요원의 급부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여 검진기관의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주선하여 우선 지불한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산업보건사업이기에 자금난은 모든 산업보건기관의 공통적 애로였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긴축예산과 마진축적이었다. 어느 정도 마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검진기관 사이의 경쟁이 있기도 하였다. 싼 검진수가에서도 덤핑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하였고 더 나아가 흉부 X-선 촬영을 하지 않고도 그 비용을 청구한 사건이 발견되어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를 빌미로 지금까지 판독협회의 검인(?)을 없애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약값의 할증이나 할인구매와 유사한 부끄러운 사건들로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지난날의 관행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IMF 구제금융하에서 기업의 경영이 어렵고 따라서 산업보건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양심선언을 해야 할 부당한 경쟁이나 부실 검진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봐야겠다. 아무리 장사꾼으로 전략하더라도 장사꾼의 商道德마저 저버리는 도둑의 누명을 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또 한해를 맞게 되었다. 국가는 제2의 건국을 내세우며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제2의 건국이 정치적으로 뜻하는 바는 모르겠으나 우리 산업보건 분야도 40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만큼 경력이 쌓였다. 우리 나름대로의 제2의 단계를 그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과거에는 비탄받아 마땅할 정도의 지나친 상업주의적 작태가 있었고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성숙된 면모를 보이면서 實事求是의 자세로 근로자의 건강을 至上의 과제로 삼는 산업보건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각오가 필요할 때이다.

註: 며칠전 어느 학회 설립취지문을 보니 기존의 산업의학회를 빗대며 집단이익만을 대변하는 직종별 모임의 하나로 표현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며, 농어민들·서비스 종사자들·자영업자들의 건강을 방치하는 집단이라고 규정지으며 이런 학회는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한다고 했다. 지금 그 취지를 논평할 단계는 아니기에 좀더 주시하겠지만 기존의 제도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앞으로 또 어떤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다.